

# 소백산 여우는 ‘아프다’

소백산국립공원에 방사된 여우들이 잇따라 밀렵도구에 희생되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 안팎에서 사고를 당한 여우 12마리 중 5마리가 밀렵도구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 18마리 중 12마리가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5마리가 밀렵도구에 희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여우의 종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소백산에 여우를 방사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단은 2012년 10월 2마리, 2013년 9월 6마리, 2014년 9월 10마리 등 3차례에 걸쳐 18마리를 방사했다.

이 가운데 5마리가 밀렵도구인 창에(타원형 뿔)에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3마리,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마리로 집계됐다.

창에에 걸린 여우 5마리 중 2마리는 목숨을 잃었으며 3마리는 구조됐으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사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3마리는 먹이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공단 측은 추정했다.

여우들이 사고를 당한 위치는 12마리 중 8마리가 국립공원 경계에서 0.5~1km 정도 벗어난 지역이었고, 특히 밀렵도구에 희생된 5마리가 사고를 당한 곳은 모두 국립공원 외부 지역이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원주지방환경청, 영주시, 단양군, 주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시작했다. 또 여우생태와 복원사업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여우 복원사업에 앞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역시 초기에는 국립공원 안팎에서 곰들이 사고를 당하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지역 사회의 이해가 높아지

국립공원관리공단 3년간 방사한 18마리중 12마리 사고

5마리 뿔에 걸려 죽거나 다리 절단...3마리는 농약 검출

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라는 게 공단 측은 설명이다.

현재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36마리로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가 가능한 50마리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소백산에 50마리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조성을 목표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여우는 중간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안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종”이라며 “멸종된 여우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사진 환경부 제공〉



## 인테리어 필름서 유해 물질 검출

나무 무늬 등을 살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인테리어 필름에서 내분비 장애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0~30일 시중에서 8가지 종류의 나무 무늬 인테리어 필름을 수거, 분석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DBP·BBP)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제조사는 로즈로사, 삼성필름, 영림, 한화 I

&C, 현대인테리어필름, 3M 등 6개사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로 인테리어필름의 원료인 PVC 수지에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수지의 성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림이 제조한 필름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은 11.5%로 법적 기준(0.1% 이하)의 115배라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현재 PVC바닥재와 벽지에는 프탈레이트 기준이 있지만, 인테리어필름의 경우 아직 구체적 검출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일반 가정에서의 인테리어 필름의 사용이 많아지는데다 한 번 시공하면 장시간 인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유해 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방사선 노출 정형외과의사 손가락 괴사

17년간 의료용 장비 사용... 국내 첫 사례

병원에서 방사선 진단장비에 장기간 노출된 의사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괴사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이는 의료용 방사선 진단장비의 피폭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원광대의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김유미 교수팀은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A(49)씨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피부 괴사 증상이 생긴 사례를 지난해 대한정형 외과학회에 발표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가 방사선 노출로 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문헌보고

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이 환자는 피부 괴사 첫 진단 당시인 2013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방사선 노출이 수반되는 척추 주사요법을 월평균 100건 이상씩 17년간 시행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양측 엄지와 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발생했으며, 피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면서 손톱 주변으로 통증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에 환자는 개인 병원 피부과 등을 찾아 보습 및 광화학요법(photochemotherapy)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는 동안 증상은 더욱 나빠졌고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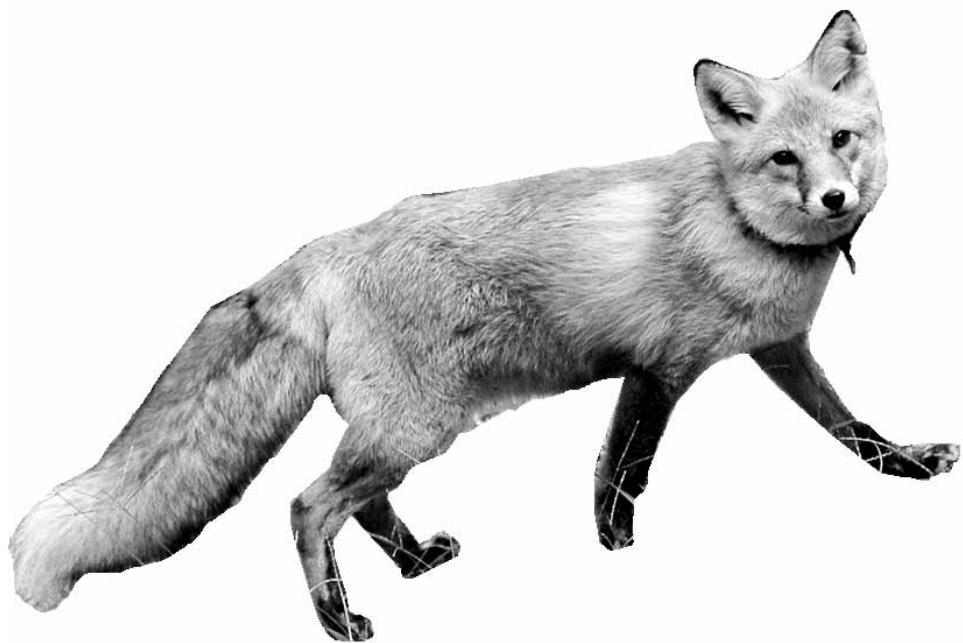


검지에 1cm의 괴사가 발생했다. 이후 환자는 원광대 산본병원을 찾아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고 나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연고를 이용해 치료했지만 괴사 부위는 더욱 커지고 통증도 악화됐다.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 혈액 피부 재생술도 시도했지만 약간의 통증 호전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결국, 의료진은 이 환자의 손가락 괴사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조직을 이식한 뒤

현재까지 경과를 관찰 중이다.

김유미 교수는 논문에서 “장시간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갑상선 등 장기의 암, 백내장, 그리고 불임 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의사들은 특히 방사선 피폭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는 만큼 전신적인 차폐기구뿐 아니라 방사선 차폐 장갑을 착용하고 방사선 촬영기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보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천파크 빌라 34평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304호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시세 및 감정이 - 1억 9천만원  
매매 - 1억 6000만원

빌라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H. 010-3605-5000

■ 다음 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301호  
4층 중 3층, 정남향, 즉시 입주  
현재 전세 4500만원에 임대 중  
광주에서 30분 거리  
매매 - 6500만원